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9월 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드자

매일 시간정해 책을

경기도 양평의 모 사찰에서 신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청정님 보살(47)은 지난달 26일 불교전문서점인 여시아문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법문집과 경전해설집 등 10여권을 샀다. 김 보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내에 나와 불서를 구입한다. 그리고 언제나 이 책들은 자신이 먼저 읽은 뒤 주위의 도반들에게 보시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눠 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99년 한국갤럽조사에서 불

함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기도나 참선은 매일 하더라도 책 읽는 풍토, 다시말해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경전공부를 장애로 보는 왜곡된 신행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불립문자의 진정한 의미는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문자 자체에 집착하거나 얽매지 말라는 이야기지,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또 일선 포교현장에 있는 스님들 역시 법문을 듣거나 기도하는 것은 많이 권하지만 상

신행 캘린더

9월 5일 (목)

■불교상담개발원 '부부대화법' =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불교상담개발원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와 함께 오후 2시 양재동 능인선원 예식장에서 '부부대화법-그대와 나, 간격 좁히기' 강좌를 실시한다. (02737-8803)

■서울 법원사 '원각경 강좌' = 송광사 서울분원 법원사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 원각경은 부처님과 문수보살 등 12보살이 문

답을 하면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경전.

법원사 주지 오경스님을 법사로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요일 7시와 금요일 2시에 열린다. 참가비는 4개월 10만원 (02733-5322)

9월 6일 (금)

■봉은사 '경전학교' = '한곳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서울 봉은사가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을 초청해,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는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며 강의교재는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다. (02516-5652)

9월 9일 (월)

■능인복지관 '위빠사나 수행' = 마음 먹기에 따라 나도 변화할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능인복지관은 동국대 불교학과 강명희 박사를 초빙해 오후 2시~4시까지 위빠사나 불교수행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무료 강좌이고 좀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3개월 코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개월 코스 수강료는 6만원. (02571-2988)

■여성불교연학회 '이혼 예방교육' = '가정 문제 치료상담원 교육 과정'. 여성불교연학회는 10월 5일까지 오전 10시 조계사 만해교육장에서 이화여대 이자형 교수, 여성의 전화 황경숙 전문상담원, 청소

년 상담원 권혜수 교수, 국회 여성위원회 박숙자 위원 등을 초빙,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치료 상담',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등을 주제로 가정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본다. 참가비는 5만원. (02735-0406)

9월 10일 (화)

■수선회 '참선교육' = '참선 수련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요...' 수선회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후문 수선회 본회선방에서 회장인 현담스님과 함께 참선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5주간 계속되는 이번 참선교육의 참가비는 3만원씩이다. (02732-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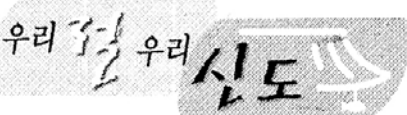
9월 11일 (수)

■마야문화원 '염불 수행' = 염불과 정토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인사동 마야문화원은 매주 수, 토요일 오후 7시 마야문화원 부원장 능원법사와 함께 불교 수행법인 정토선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 (02722-1050)

■동산불교대 '영어로 배우는 불교' =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영어는 필수. 불교를 영어로 배우는 것은 불교의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 동산불교대에서는 중앙승가대 조일문 교수를 초빙,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부처님의 생애·교리 등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02732-1206)

늘 밝게 웃으며 절의 모든 일 돌봐



고양시 광명사 신옥순·김정임신도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명 '로데오' 거리. 아파트와 러브호텔이 마주 보고 있는 곳. 각종 술집, 고깃집이 행형색색의 네온사인 간판아래 붉은 욕망을 토해내는 곳. 그 중심에 연꽃과 같은 도실포교당 광명사주지 법공가 있다. 포 광명사에는 두 기둥으로 불리는 신옥순 총무와 김정임 공양주 보살이 있다.

도 들는법. 혹 신도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공양간 일을 맡고 계신 이타형 보살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동등 톡톡 두드려 주시는 게. 친정어머니 같아 마음이 푸근해져요."

아침 8시, 남편이 출근하자 신옥순 51. 보리행) 보살은 더 바빠진다. 웅인 집에서 고양 광명사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광명사에 도착하면 신도관리에서부터 공양간 먹거리 구입, 각종 행사 준비까지 신보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신보살은 1년 전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거리가 멀다고 한 번 맺은 인연을 끊을 수 없었다. 충무 소임도 소임이지만 불교대학과

신보살이 광명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개원 때인 1998년. 어릴 때부터 불자 집안에서 자라 불자 집안 시댁으로 시집을 온 보살은, 남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과 가까운 광명사를 찾게 되었다. 개원 초기 포교당이 전법드랑으로 자리 잡기 전, 보리행 보살은 충무 소임을 맡게 되었다.

어느 조직이건 총무라는 자리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런저런 뒷말

유치원 운영 서원을 세우고 있는 주지 스님의 뜻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작은 미래를 위해 신보살은 오늘도 포교당 내부를 바빠 돌아다닌다.

김정임 보살(46, 상선행). 김보살도 신보살처럼 '장거리 출퇴근'한다. 1995년 가을, 주지 스님이 경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옥순(오른쪽)·김정임 보살.

도 산에서 포교당을 운영할 때 첫 인연을 맺었다. 스님이 고양시에 포교당을 개원하자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보낸다. 항상 은근에 반찬 냄새가 배어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모든 대중이 즐겁게 공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가 더 많아요. 매월 15일 큰 스님이나 유명 법사님들을 초청하는 법석이 열리거든요. 그 때 제가 올린 공양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김보살이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건 20살 무렵. 별 이유 없이 몸이 아프자 큰 오빠 손에 이끌려 절을 찾게 되었다. 결혼 후, 자식들이 아프자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절을 찾게 되었다. 절에서 되찾은 건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었다.

취재 말미 두 보살은 더 수고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니 기사에 꼭 넣어달라며 신신 당부했다.

추천의 말

법공님 광명사 주지

신옥순

김정임 보살은 우리 포교당의 두 기둥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군포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왕복을 하며 포교당 일에 열성을 보이시니까요. 어떨 땐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만 늘 밝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포교당은 개원한 지 4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 만큼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연동축제를 개최하면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 중심에 두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우리 지역에 동국대 병원이 개원하면 사회봉사 단체인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의 일원으로 적극 활동할 겁니다. 불교적 바탕아래 간병과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쌓아, 병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들을 위해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청정 거사님, 각종 행사에 도움을 주는 대도행·보명심 보살님. 너무나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남동우 기자

구담사 양력 9월 8일 10시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는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고, 장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기도로 엄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합시다.

태아영가기도 방법

- 스님하고 49일간 영가 천도재 동참하여 기도한다.
- 사경 및 주력으로 기도한다.
- 부부가 함께 참회기도 하는것이 좋다.
- 태아영가는 조상영가와 같이 천도재는 하지 않는다.
- 기도할때는 아기가 미안하다고 하고 참회기도 한다.
- 최소한 7회이상 태아영가 천도재를 하는것이 좋다.
- 기도할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극히 기도한다.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초코렛, 초코파이, 장난감, 신발, 양말 등등



- 입제일 : 양력 9월 8일(음력 8월 2일 일요일) 10시
- 회향일 : 양력 10월 27일(음력 9월 22일 일요일)
- 태아영가제사 : 입재(9월8일) 3재(9월29일) 5재(10월13일) 7재(10월27일) 지남
- 대중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연곡4리 하차 수유리(4호선) → 일동 → 구담사
- 구담사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장소 : 오전 8시까지 - 강변역 테코마트 주차장 입구(정일관광)
- 기도금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협 : 225050-56-033370
- * 금년 대학 입시생, 취업, 시립지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 태아영가 기도 접수만 받습니다.
- * 지방신정도 가능하오니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031)533-2855 팩스 : 031)532-2441 충무보살 마하심 : 02)446-6101, H.P 011-391-6101